

잡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2020. NOV + DEC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다.

Only passions, great passions, can elevate the soul to great things.

드니 디드로
Denis Diderot



Contents



004 **special report**

010 **power interview**

윤보형 변호사

014 **hot issue**

018 **letter from**

김성훈 변호사

박상흠 변호사

022 **real story**

030 **contest**

최고의 ICT 분쟁 조정인은 누구?

035 **statistics**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036 **happy lawschool**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서정화

039 **book**

040 **opinion**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중환 교수

상담교육연구소 도현 류진혜 소장

046 **health mentoring**

048 **art sonata**

052 **law toon**

054 **culture**

056 **akls news**

058 **out campus**

059 **quiz**



2020. nov + dec

발행일 2020년 1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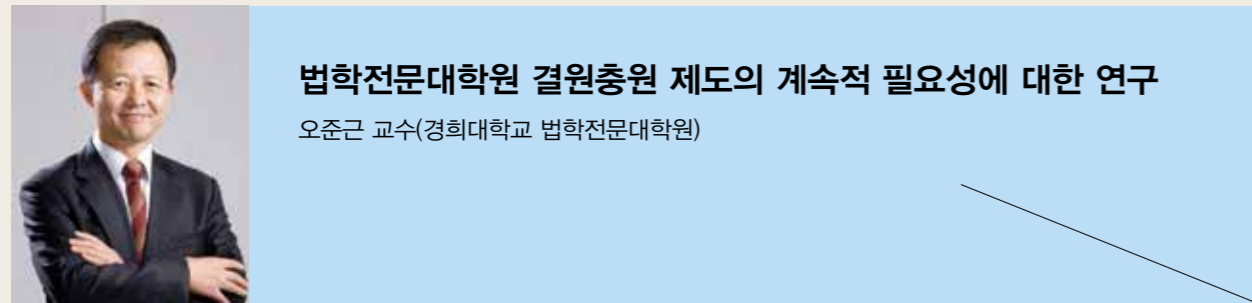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도입 이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전원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은 다양한 직역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법전문 도입이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 법전문 발전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법전문 전·현직 원장 3인이 모여 법전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

결원충원 제도, 대한변협 제3주기 평가, 변호사시험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결원충원 제도의 지속적 필요성에 대한 연구

오준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결원충원 제도의 취지와 현황

-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대통령령 제27866호(2017. 2. 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유효함]

- 결원의 이월 및 충원은 편입학에 의한 일부 법전원의 공동화 현상 예방, 법조인력의 원활한 공급,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대학재정의 부담 완화 등의 순기능이 있다.

○ 결원충원 제도 중단 시 문제점

① 엄정한 학사관리의 어려움	법전문법 시행령의 한시적 운영기간 설정·만료에 따라 결원충원 제도가 중단될 경우, 학교는 결원 발생 및 충원에 대한 현실적 고민으로 성적 불량자에 대한 제적, 퇴학 등 제재와 징계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② 법전문 정원 확보 차질	2,000명의 입학정원은 실질적인 정원으로, 결원이 생기게 되면 이를 충원할 수 있어 야지만 실질적 정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법전문에서 자퇴 등 발생하는 결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2,000명 입학정원은 보장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③ 법전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현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응시자의 50% 수준만 합격할 수 있는 선발시험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법전문이 제도 도입초기 의도했던 다양한 선택과목·특성화 과목의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입학정원 학교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한데, 자퇴 등 결원 발생으로 재학생 이탈이 더 가중될 경우 해당 법전문은 정상적인 교과목 개설 등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④ 법전문 재정 손실 가중	<p>〈2016~2020학년도 법전원의 결원발생 및 충원현황〉 (단위: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학년도</th> <th>'16</th> <th>'17</th> <th>'18</th> <th>'19</th> <th>'20</th> <th>평균(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전년도 결원발생</td> <td>134</td> <td>141</td> <td>124</td> <td>183</td> <td>167</td> <td>149.8(7.49)</td> </tr> <tr> <td>차년도 충원현황</td> <td>117</td> <td>114</td> <td>106</td> <td>136</td> <td>130</td> <td>120.6(6.03)</td> </tr> <tr> <td>미충원 인원</td> <td>17</td> <td>27</td> <td>18</td> <td>47</td> <td>37</td> <td>29.2(1.47)</td> </tr> </tbody> </table> <p>총 발생하는 결원인원보다 충원하지 못하는(입학정원의 10% 초과) 인원이 매해 발생하고 있어 일부 학교는 재정손실이 있다. - 결원 미 충원시 한해 21.4억 원 손실. 3개 년도(1~3학년 재학) 운영 시 64.17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임.</p>	학년도	'16	'17	'18	'19	'20	평균(비율)	전년도 결원발생	134	141	124	183	167	149.8(7.49)	차년도 충원현황	117	114	106	136	130	120.6(6.03)	미충원 인원	17	27	18	47	37	29.2(1.47)
학년도	'16	'17	'18	'19	'20	평균(비율)																							
전년도 결원발생	134	141	124	183	167	149.8(7.49)																							
차년도 충원현황	117	114	106	136	130	120.6(6.03)																							
미충원 인원	17	27	18	47	37	29.2(1.47)																							
⑤ 편입학 시행 시 법전문 황폐화 가속	<p>(일부 법전원의 학사관리의 곤란과 결원 심화) 편입학 제도 시행 시 일부 법전문 재학생들의 편입학 준비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사관리에 문제점 발생 및 일부 법전원의 결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p> <p>(법전원의 지역균형 붕괴) 일부 지방소재·소규모 법전문은 자퇴 등 자연발생 결원에 더해 편입학으로 인한 학생 이탈로 지역균형의 취지 훼손은 물론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p> <p>(재학생 이탈, 일부 학교에 재정부담 전가) '결원 발생→입학전형 시 지원자 감소로 미충원→편입학으로 이탈→결원 증가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p>																												

○ 해결방안

-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 조항 삭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2.27. 대통령령 제242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삭제해야 한다.



대한변협 제3주기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봉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후, 2012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1주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후 2017년까지 2주기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3주기 자체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2022년에 3주기 본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 법전원 평가는 법전원 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란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이 법전원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법전원 교육의 충실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 법전원 평가기준의 일반적 문제점

① 법전원 평가의 목표와 법전원 평가의 성격	법전원 평가의 경우 다른 고등교육기관 평가와 달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지역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내주고, 이후 최초의 기준을 유지·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② 평가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문제	피평가 기관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심지어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전원과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립하고 더구나 법전원 평가를 이에 연계시키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변협의 법전원 평가를 무조건 신뢰하기는 곤란하다.
③ 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절대적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기는 곤란한 구조를 갖고 있다. ※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협 소속으로 평가위원은 교육부장관 추천 4인, 법원행정처장 추천 1인, 법무부장관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1인을 위촉함.
④ 평가기준의 과다와 평가의 부담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그 내용이 미국이나 일본의 로스쿨 평가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평가를 준비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⑤ 평가기준 제·개정절차적 문제점	1주기 평가기준이 설정된 이후 2주기 및 3주기 평가기준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법전원의 의견을 충실히 듣는 과정이 생략되고 작성된 기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의 제·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 학교의 규모, 개별 법전원의 교육목표와 특성화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제5평가 영역(교육성과) 관련 평가기준의 문제점

-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3주기 평가기준의 제5평가 영역에 제1주기와 제2주기의 평가기준에는 없던 '교육성과' 관련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교수학습 자료	3주기 평가기준 평가자료(원안)		개선안 제안
	중간 결과물	최종결과물	제출자료
1. 교재, 부교재 2. 법률, 판례 등 보충자료 3. 강의계획서 4. 퀴즈 및 쪽지시험 문제 5. 시험문제: 중간,기말 6. 과제물 7. 토론 주제 8. 영상 자료 9. 문제풀이 자료 10. 연구 주제 11. 학습 상담(코칭) 자료 12. 모의상황 시나리오 13. 인터뷰 질문자료 14. 실습자료	1. 예습자료 2. 개인 프로젝트 결과물 3. 팀 프로젝트 결과물 4. feedback 자료 5. 과제보고서 6. 토론 참여 의견지(thought sheet) 7. 문제풀이 결과자료 8. 연구조사 결과자료 9. 학습개선 효과자료 10. 모의상황 참여 성과 자료 11. 인터뷰 결과자료 12. 실습성과 자료	1. 강의평가 결과 2. 성적	1. 강의 계획서 / 교육과정 MAP 2. 시험문제(중간,기말) 및 답안지 3. 성적 및 평가자료 4. 강의평가 항목

- 무려 28가지의 평가자료를 요구한 것에 비하면 축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과정 MAP 작성 등 교육성과 관련 평가기준의 큰 틀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하여 법전원 교수들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교육성과 관련 평가기준의 문제점〉

교육과정 MAP 등 교육성과 평가기준 및 자료의 지나친 부담	실효성 부족 및 충분한 준비 결여	법전원 교육의 자율성, 교수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수강 시스템 변경 등 학사행정의 부담	다른 고등교육(기관) 평가와 비교
-----------------------------------	--------------------	-----------------------------------	----------------------	--------------------

○ 법전원 평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법전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대부분의 법전원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진하느라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란 법전원 교육이념(법전원법 제2조)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 (평가기준 등 법전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논의의 필요성) 법전원 평가를 담당하는 대한변협은 물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법전원 교육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교육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방법이나 평가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 (법전원 차원에서의 노력 필요성) 3주기 평가기준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MAP이 아니라도 기존의 것보다는 양적, 질적으로 훨씬 충실한 표준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내용을 표준화하고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전원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독립적 평가기관의 설치 검토) 교육전문기관이 아닌 대한변협이 법전원의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방법을 선도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확보 차원에서도 독립된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발전방향

오수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합격자 수를 둘러싼 논란

- 변호사 수가 많다는 이유로 합격자 수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다.
- 법률상 근거 없는 주장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2문 생략)

-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문 생략)

-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법전원 체제 하에서 아무리 많이 뽑아도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 합격자 수에 따른 2049년 변호사 수 예측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65%	75%	85%	95%					
정원대비 합격률	65%	75%	85%	95%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	10.0	11.1	12.2	14.5	48.6	49.2	25.7	18.5	7.7
GDP 1억달러당 변호사 수	1.68	1.87	2.06	2.47	5.28	7.79	4.08	3.29	1.41

※ 오수근/김두일/이승준,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삼영문화사, 2020), 59면

- 2020년 법무부 용역보고서(255-256면)는 인구증감, 경제성장, 법조유사직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정원대비 65, 75, 85% 합격시 변호사 수의 예측치를 보여주었다.

- 위 표는 법무부 용역보고서와 같은 전제와 모델에서 정원 대비 95% 합격시 2049년 변호사 수의 예측치를 추가한 것이다.

○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

- (합격자 수 제한)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전원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와 역량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 추론 연습이 아닌 암기 위주의 학습 행태를 초래하였고, 최신 판례를 따로 암기하게 되었다.

○ 변호사시험의 정체성

- 변호사 자격시험

-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자격시험의 속성

-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 유자격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가 계속된다.

- 법학교육과의 연계성

- 변호사시험은 법학교육을 전제로 한다.

※ 변호사 자격 취득 경로
 학사학위 ▶ 법학적성시험 ▶ 법전원 교육 ▶ 변호사시험

- 법전원에서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 변호사시험이 법학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

○ 변호사시험의 발전을 위한 과제

중장기 과제	단기 과제
- 합격자 수 산정방식	- 출제범위 제한
- 변호사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	- 실무교육의 시기별 배분
- 문제 유형	- 기출문제 중심 출제
- 시험 시간	- 출제와 채점의 전문화
	- 판례 암기 지양
	-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
	-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개념 정립

- 출제범위 제한

- 자격시험에서 다룰 내용은 일정해야 한다.
- 변호사시험을 위한 공부의 총량을 축소해야 법전원에서 변시 준비 이외의 공부를 할 수 있다.
-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판례(기본 판례)를 선정하는 것은 출제 범위 축소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 기본 판례 선정에 이어 변호사시험 과목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

- 기출문제 중심 출제

- 자격시험에서는 당연히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
- ① 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매년 일정해야 한다.
- ② 자격시험은 기본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 ③ 새로운 내용의 문제는 미리 고지되어야 한다.
- 변호사시험은 기출문제에서 출제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지난 봄, 윤보형 변호사는 10여 년간의 아트테크 노하우가 집약된 아트테크 전문 서적(《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을 발간했다. 아트테크는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재테크 방식을 말한다. 윤 변호사는 아트테크가 주식, 부동산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때도 많지만, 가장 큰 수익은 '그림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트테크 성공 비결이요?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향
윤보형 변호사

미술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다.

초등학교 때 가족여행으로 프랑스 오랑주리 미술관(Musée de l'Orangerie)에 갔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다. '오렌지 화원'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미술관 만큼이나, 그날따라 미술관을 둘러싼 공기, 내리쬐는 햇살, 그림을 보는 관람객들의 모습 등 모든 게 좋았다. 그러다 마리 로랑생의 '세 여인들'이라는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는데, 그 순간 하마터면 양팔을 벌려 그림을 안을 뻔했다(웃음). 아마도 어린 시절의 내가 미술과 사랑에 빠진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서울대 경제학부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한 후 로스쿨에

입학했다. 경제학을 전공해서 법학이 꽤 낯설기도 했을 것 같은데, 로스쿨 생활은 어땠나?

법학 선행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에 입학해서 그런지 1학년 때 많이 힘들었다. 다행히 연세대학교가 갤러리들이 많이 밀집한 삼청동과 가까워서, 미술관을 찾아 그림을 보면서 큰 위안을 얻었다. 미술 작품 앞에서면 복잡한 머릿속이 고요해지면서 생각이 끊어지는데, 그 순간이 좋았다. 일종의 해방감이랄까(웃음). 점심시간이나 공강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자주 미술관에 갔던 기억이 난다.

지난 봄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라는 아트테크 서적을 발간했다. 어떻게 쓰게 된 책인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미술 사랑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다. 스무살 때에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했었고, 세계 각국의 아트페어에도 해마다 방문했다. 주변에서 내가 미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나에게 미술과 아트테크에 대해 질문하는 지인들이 점차 많아졌다. 그런데 설명을 할수록 사람들이 미술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자제

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쓰게 됐다. 또, 책을 낸 후 지인들이 미술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언젠가는 나와 함께 컬렉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도 담았다(웃음).

실제로 책을 본 지인들이 아트테크에 도움이 됐다고 하던가?

지인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만, 기존에 아트테크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좋다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쁘다. 그 정도로 우리 미술시장의 A부터 Z까지를 잘 설명해주는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나는 아트딜러도 아니고 변호사라는 본업이 있는 사람이라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으려고 했는데,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보람 있다.

부동산, 주식 등 수많은 재테크 수단 중에서 아트테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

단순히 재테크 측면에서만 봐도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아트테크의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 훌륭한 작품을 구매한다면 원금보전의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무엇보다 아트테크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인의 취향이나 수준이 고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입할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다 보면, 웬만한 의사결정은 쉬워진다. 미술품의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고, 시장이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다시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아무래도 조심하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아트테크 비법을 요약해서 소개해 준다면?

아트테크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그림을 많이 봐야 한다. 많이 보면서 그림과 친숙해지고 점점 좋아하는 것이 가장 큰 비법이다. 그림을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이 찾아보고 그만큼 시간을 쏟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씩 미술시장이 보일 것이다. 그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트테크가 뜬다고 해서 덜컥 사면 대개 손실을 보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매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림 시장도 마찬가지다. 많이 보고, 많이 돌아다

지금처럼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꾸준히 컬렉션을 늘려가면서 인생에 대한 기록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



녀야 효자가 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는 것이 성공하는 아트테크의 비법이다(웃음).

사전 지식 없이 많이 보기만 해도 안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 '눈 명필' 즉, 비범한 안목을 갖는 방법을 조언해 달라.

무조건 많이 본다고 해서 반드시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수없이 봤는데도 여전히 그림이 싫다면 아트테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그림과 맞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비범한 안목을 갖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께 그림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크루(crew)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 점차 자신의 안목이 예민해지고 고양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수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작품을 컬렉할 때는 항상 '작가'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작품 속에 작가의 시간이 담겨있고, 작품이 나에게 올 때 작가의 시간도 함께 온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원화의 경우 작가가 직접 캔버스에 그린 것이어서, 작가의 시간과 삶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아트테크 측면에서 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작가가 마음에 들지 않

으면 절대 수집하지 않는다.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대원 선생님의 작품이 가장 좋다. 이대원 선생님은 동양적인 풍경을 유화로 그려서 동양과 서양의 접점에 있는 화가라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림만큼이나 선생님의 생애도 정말 좋아한다. 오래전 이대원 선생님의 작품을 어렵게 소장하게 됐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의 숨결이 많이 안 느껴지더라(웃음). 선생님의 숨결을 찾아 헤매던 중, 운 좋게 광주의 한 고미술 서점에서 선생님의 친필 서명이 있는 도록을 구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작고하셨던 해의 서명이 담겨있는 도록이어서 그런지 감동이 배가 되면서 선생님의 그림과 생애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미술품은 아니지만, 그 책을 정말 아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갤러리 방문이나 아트페어 참가가 어려워졌다. 비대면 시대의 미술품 컬렉팅 방법을 추천해 달라.

오히려 더 좋아진 측면도 있다. 세계 최대의 아트 페어로 불리는 아트바젤(Art Basel)이 올해는 온라인에서 개최됐는데, 일정상 아트바젤에 참석할 수 없었던 관람객들도 온라인으로 작품을 볼 수 있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작품의 가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인터넷 플랫폼에 구현된 갤러리에서는 작품과 가격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다. 비행기 티켓이나 아트페어 입장권이 없어도 작품을 구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해외 유명 갤러리의 경우 전시 오픈 전에 종종 비공개 작가 인터뷰를 개최하는데, 최근에는 이 인터뷰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작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작품에 얽힌 풍성한 스토리까지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정향이 변호사로서의 첫 번째 근무지인가?

법무법인 소명이 첫 직장이고, 이후 엑셀러레이팅 투자사에서 책임심사역과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초기 스타트업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언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 후 지금의 법무법인으로 와서 근무를 시작했고, 기업 자문, 스타트업 자문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민사, 행정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미술과 관련된 업무로는 갤러리가 해외 작품을 바잉해올 때 세금 이슈가 없도록 하거나, 미술품의 증여·상속 문제에 관한 자문 등이 있다.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인가?

변호사로서 제일 기쁠 때는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다. '내가 의뢰인에게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실제적 조언까지 건넬 정도로 업무에 익숙해졌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면서 더 넓게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20년차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찬다고 하실 수도 있겠다(웃음). 변호사로서 성장하고 있어서 그런가, 여전히 재미있다.

법조 분야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호기심 넘치는 성격이 삶의 원동력이다. 변호사 1년차 때 힘들었던 이유는, 변호사가 됐으니까 다양한 관심사를

모두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터득했고, 지금은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믿는다. 특히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바로 파악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은 변호사로서의 강점으로 작용할 때가 더 많다. 앞으로도 나의 발전을 위한 호기심은 계속 열어들 것이다.

변호사로서의 포부와 컬렉터로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꿈이 있었지만, 요즘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고객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호기심이 워낙 많아서 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하는데, 미술에 대한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아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 지금처럼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꾸준히 컬렉션을 늘려가면서 인생에 대한 기록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 또한 먼 훗날 역량이 된다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 해소되지 못한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려면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아야 하니까 부지런히 일해야겠다(웃음).

윤보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최우등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 소명
前 (주)퓨처플레이 책임심사역 및 사내변호사
現 법무법인 정향

book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똑똑한 여자의 우아한 재테크

전시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미술 작품을 구매해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미술 투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림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아트테크의 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한다. 높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재테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issue 01

매년 8월 말에 개최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자,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개별 입학설명회(온라인, 소규모 오프라인)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입학 정보를 제공하였다.

코로나가 바꾼 입학설명회 新 풍속도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개별 입학설명회 현장

2019년



2019년에 개최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현장

김순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전남대학교 전 원장)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는 8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법전원별로 마련된 상담부스에서는 법전원 관계자(교수·교직원)와 수험생의 1:1 대면상담이 진행됐고, 이를 동안 약 4,600명 가량의 수험생이 행사장을 찾았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뤘다.

2020년 -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한 상담



동아대학교 법전원 홈페이지에서 실시된 Q&A 입시상담

동아대학교 법전원 홈페이지에서 실시된 Q&A 입시상담

일부 법전원은 자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시 상담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게시판에 문의사항을 남기면 관계자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수험생들은 주로 제출 서류, 학점 반영 방법, 외국어 성적, 장학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온라인 설명회 (ZOOM, WEB-EX, 유튜브)



강원대학교 정진근 원장과 이윤정 부원장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며 수험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입학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법전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이 바로 온라인 상담이다. 이미 상반기에 줌(ZOOM), 웹엑스(Web-Ex)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큰 부담 없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설명회는 사전 접수를 받아 정해진 인원에게만 접속 링크를 보내고 입장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영상 설명회 (사전녹화)

동영상 설명회는 학생들이 사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고, 일반적인 입시 사항과 학교 시설 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촬영과 편집이 이루어진 만큼 준비된 답변이 가능했고, 교내 곳곳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동영상은 개별 법전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아주대학교 윤태영 교수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설명회 동영상 캡처)

동아대학교 최우용 원장이 로스쿨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홍보 동영상 캡처)



고려대학교 입시설명회에서 1:1 상담이 진행 중이다.

전남대학교 입시설명회에서 1:1 상담이 진행 중이다.

1:1 대면 상담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소규모 대면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학교에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1:1 대면상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상담실에 입장하도록 했으며,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대기 시 거리 유지, 발열 검사, 손소독 실시, 발열 검사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issue 01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유튜브로 무료 법률교육 서비스**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지난 9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무료 온라인 법률교육을 시작하였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이번 온라인 법률교육은 '전공연계형 법률교육', '지역맞춤형 법률교육', '법진로교육' 총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전공연계형 법률교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 '근로계약과 법' 등이 다루어지며, 지역맞춤형 법률교육에서는 '지방정책법', '생활법률'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진로교육은 '영화 속 법 이야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진로'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교육 영상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유튜브 채널에 '21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issue 02

**이화여자대학교 법전문원,
교육 현장에 법률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지난 9월 10일(목) 이화여자대학교 법전문원과 인텔리온연구소는 법률 인공지능 연구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인텔리온연구소는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 '유렉스(U-LEX)', 비대면 법률자문 시스템 '법률메카(Law-Meca)', 인공지능 계약서 분석기 '알파로(Alpha-Law)' 등을 개발한 법률 AI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화여대 법전문원은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텔리온연구소의 법률인공지능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교육 현장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issue 03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개관식 개최

지난 10월 14일(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개관식이 열렸다.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의법정, 계단형 대형 강의실, 중·소형 강의실, 교수연구실, 휴게실 등이 들어섰다. 그동안 전북대 법전문원 학생들만의 전용 건물이 없어서 발생했던 불편함은 신관 건축으로 인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관식에는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송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해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전문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issue 04

**변호사시험 제주에서도, 강원에서도 응시할 수 있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하여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하여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5개 시험장(정원순)	
수도권(14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 서강대
지방권(11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 충북대, 원광대, 강원대, 제주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기간: 2021. 1. 5.(화) ~ 1. 9.(토) ※2021.1.7.(목)은 휴식일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0.11.20.(금)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 	시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4. 23.(금) 경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 채점, 합격자발표, 답안지열람(02-2110-3238)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 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국·한문 혼용 법전을 제공했던 제9회 변호사시험과 다르게 제10회 변호사시험에는 '한글 법전'이 제공될 예정이며, 2020년 11월 10일까지 공포되고, 시험 시행일 현재(2021.1.5.~1.9) 시행 중인 법령이 수록 범위에 포함된다.

길은 어디에나 있고,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많다.



법무법인 참솔
김성훈 변호사

비행기 창문 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다시 봐도 반가운 제주도의 모습이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익숙해진 풍경이지만 이 섬은 여전히 저에게 신비한 존재입니다. 서울에서 재판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편지를 채울지 고민하다, 저의 시행착오, 실패와 방황까지 포함하여 제가 제주도에 오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눈치 채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현황에 따르면, 2020. 9. 17. 기준 전국의 개업 변호사 23,633명 중 약 74%인 17,584명의 변호사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제주에는 약 0.5%인 120명의 개업변호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가 아니라도 대부분의 변호사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앞으로 변호사가 되실 여러분도 대부분은 서울에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로스쿨에 재학 중일 당시에 제가 제주도로 오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곳도 서울이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마친 직후, 저는 서울 소재의 대기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채용이 결정되어 사내변호사

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일들이 모두 결정되는 바람에 험난한(?) 변호사 생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장래에 대해 너무 낙천적인 생각만 가득하였던 것 같아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제가 수행한 사내변호사의 업무는 현업부서의 질이나 체결 예정인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회신하고, 소송 등의 각종 분쟁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외부 로펌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특정 분야의 훌륭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지만 특정 분야의 업무만을 담당하다 보니 전반적인 법률사무(특히 형사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기는 힘든 점이나 시간이 갈수록 송무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요원해 지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7시 정도에 출근하여 회사 내부 카페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고(처음에는 회사에 카페가 있어서 좋았지만, 나중에는 단순히 배만 채우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녁 6시~7시경에는 퇴근(당연히 야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을 하는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지는 대신 조금은 지쳐갔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저는 3년간의

사내변호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송무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의 업무는 상당히 달라서 저 혼자 개업을 하기에 두려움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송무변호사로 미리 근무하고 있던 지인 등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개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주도에 개업한 동생이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서의 개업이 당연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에 했던 결심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앞으로 변호사의 역할도 더욱 다양해 질 것이고, 변호사의 대도시 집중이나 무변촌 등의 현상도 상당히 완화되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저 역시도 로스쿨에 입학한 이상 새로운 업무 분야를 개척하거나 변호사 수가 적은 지방에 개업해서 지역의 법률서비스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처음의 걱정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주도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자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변호사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개업한 변호사에게 일생에 몇 번 있지 않은 소송 업무를 기꺼이 맡길 의뢰인도 많지 않았고, 제주도에 아무런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외롭기도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습기가 심해서 매일 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한 탓에 집안에 핀 곰팡이에 많은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생활은 저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산 속에서 차도를 막고 걸어가는 소떼를 만나 한참을 차에서 기다렸던 일, 경찰서 민원실 무료 상담에서 만난 할머니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던 일, 제주변호사회 회원들과 처음으로 전국 변호사 축구대회에 나갔던 일 등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많이 생겼습니다.

애초의 우려와 달리 각종 봉사활동,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건의뢰도 늘어나고 주변의 의



뢰인들도 소개받게 되었고, 각종 복지단체에서 의뢰하는 다양한 소송구조 활동도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일 당시에는 하지 못하였던 인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스스로 평가하기엔 부끄럽지만 업무적으로도 나름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했던 걱정들(로스쿨 입시, 변호사 시험, 취업 등등)을 앞으로 하게 되겠지요. 미래는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다만,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길은 어디에나 있고, 아직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용기를 내시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침 제가 탄 비행기가 제주도에 안전하게 착륙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기대 이상의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참솔 대표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대학교 사내변호사 그리고 송무 외 시장의 개척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
박상흠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로스쿨 재학시절에 로리뷰 편집장 활동을 열렬히 한 경험 때문인지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기고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 동아대 로리뷰 DALS 1호를 창간할 때에는 법무부에 방문해 편집위원들과 함께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직접 인터뷰했고, 3호에는 미대사관을 통해 2012년 경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필사인이 담긴 책(담대한 희망)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노고를 기억한 덕분인지 모교에서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약 5년간 근무할 수 있었다. 독자들에게 대학교 사내변호사의 활동은 다소 생소한 영역일 듯하여, 대학교 법무의 실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포화상태에 직면한 송무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간간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싶다.

2. 대학교 사내변호사

(1) 법률자문 및 교육

대학교의 조직은 학교법인과 대학본부로 나뉘어져 있다. 대부분의 사내변호사의 주업무가 법률자문과 송무수행 및 송무보조라고 할 수 있듯이 대학교 사내변호사의 업무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대학교가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사내변호사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행정직원은 항상 행정책임에 대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법무팀의 자문을 받

아 책임을 경감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대학교 사내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해야 하지만, 대학조직의 특수성을 잘 간파하기도 해야 하므로 신중한 자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법률적인 내용의 자문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요청한 행간을 잘 이해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의 사내변호사가 경영자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사업에 법률적인 이유로 제동을 거는 일을 하게 된다면 경영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듯이, 대학교의 조직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려고 할 때 때로는 법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법률이 과거를 반영하고 미래의 변화에 소극적인 측면이 강해서 미래지향적인 업무와는 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사내변호사는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하고 조력해야 한다.

대학교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무영역이다. 노무사가 현장성과 전문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지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신뢰해서인지 대학교에서는 사내변호사에게 교직원의 임용, 해고,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집중적으로 요청한다. 간혹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자문이 법무실에 요청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한편 폰트파일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폰트개발업체가 대학교를 상대로 고소 및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는 폰

트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 원을 폰트업체에 지급하고 합의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법무팀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을 상대로 저작권법을 교육한다.

사내변호사가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 중에는 업무연관성이 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도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데 이를 잘 숙지해서 매년 1회씩 교직원을 상대로 강의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자문은 각 부서별로 수시로 요청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서를 늘 참고했던 기억이 있다.

(2) 소송

법률자문과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 사내변호사는 소송대응도 잘 진행해야 한다. 대학교 사내변호사의 주업무가 송무가 아님에도 대학교는 사내변호사가 송무를 수행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대학교 소송의 주종목은 '교원소청심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세종시에 위치해 있는데, 교원들의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해 교원과 학교법인간 행정심판을 하는 기관이다. 비위사실 혹은 부적절한 업무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은 교원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불이익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교육부산하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해당 교원이 제출한 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학교법인은 1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교무처와 법무팀 그리고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최종 답변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통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일을 통보하면 심사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던지고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며, 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최종변론도 하게 된다. 심판결과는 기일 다음 날 오전에 문자로 통보된다. 대학교 사내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 외에도 건설소송, 저작권소송, 명도소송 등도 진행할 수 있다. 간단한 내용의 소송은 직접 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난이도가 높은 소송은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소송의 꽃은 교원소청이다. 민형사 사건과 달리 일반 변호사들은 교원소청심사를 수행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재임용 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처우를 개선시킨 고등교육법의 시행으로, 교원소청심사의 인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송무 외 시장

향후 송무시장이 점차 포화될 예정이므로 송무시장 외의 다른 시장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기본업무는 송무이기 때문에, 소송업무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필자와 같이 짧은 송무 경험 후 사내변호사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최소 5년은 송무시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격랑의 파고를 겪은 후 기타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로스쿨에서 편집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위원으로서 사설 작성과 각종 기고문들을 종종 투고하고 있고 보람을 느낀다. 근래에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 가운데 재판현장과 법률개정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언론인들이 가진 법률지식만으로는 전문적이고 통찰력 있는 보도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회현상과 유리된 법률이 있을 수 없고, 법률의 협력 없는 사회현상이 있을 수 없기에 둘의 관계는 상호교통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가의 역할을 비단 재판업무에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역사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기회가 된다면 국제관계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워싱턴 DC의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독자 여러분들도 송무와 송무 외의 업무를 구분하는 법조인이 되기 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고양시키는 것에 주력하는, 시대를 읽는 법률가가 되어 주길 소망한다.

끝으로 책 한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현재 독자들은 어떤 부류의 법률가가 될 것인지 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서 시험의 합격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독자들에게 일본 여성 변호사 아마구치 마유의 『7번 읽기 공부법』의 일독을 권한다. 시험을 위한 공부와 학문을 위한 공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필자는 위 저서를 읽으면서, 학창시절의 공부법이 학문을 위한 것과 시험을 위한 공부를 구분하지 못해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자의 공부법이 점점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의 수험공부에 매진하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편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감히 추천해 본다.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다녀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최서진

1. 들어가며

지난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주최한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은 공익인권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비법조인들이 다양한 시민단체의 현장을 경험하고 선배 변호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전체 수습 기간 동안 하나의 기관에서만 진행되는 일반적인 실무수습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함께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각 기관 현장에서 진행되는 개별 프로그램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공익인권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로 공익인권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직접 뵈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장애, 여성, 동물, 노동, 난민 등) 중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의 최전방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배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 공통 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은 8월 10일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토크 콘서트, 8월 14일 구금시설 인권실태에 대한 기획토론회, 8월 18일 역량강화 강의, 그리고 마지막 8월 21일 활동평가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조영관 변호사님께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무에 꼭 필요한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간 변호사들"이라는 주제로 네 분의 변호사님들께서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택하게 된 계기와 현재 하고 계신 업무 등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공익변호사의 일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순간순간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릴 최소한의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말씀이 인상깊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구금 시설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수용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소년보호 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각 분야의 활동가분들께 직접 들어보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법률가로서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의 입법운동과 변호사 활동, ADR실무, 법률문장실무 등을 주제로 한 4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실제로 개별 기관에서 실무를 수행할 때 바로 응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무척 유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원래 전체 인원이 모여 수료식과 함께 각자 파견되었던 기관을 소개하고 진행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들어보는 활동 평가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19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 아쉽게도 참여 가능한 인원만 모여 간단한 발표회와 수료식

만을 진행하였습니다.

3. 개별 프로그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6개 협력기관이 함께하였는데, 각 기관마다 1~4명 정도의 학생들이 배정되어 총 6일 동안 해당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복지소의계층 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제의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립된 공공기관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배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소송지원,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교육 책자발간, 정책연구, 제도개선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수습 기간 동안 크게 동물, 아동, 여성 3가지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법문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센터장이신 김도희 변호사님께 동물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외국의 동물에 대한 법률과 판례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첫 번째 과제로 큰돌고래 감금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성유진 변호사님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실제 국내 출생등록 제도의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않거나, 국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즉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교육 이수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원고 특정, 손해액 산정, 피고의 반박 등 실무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가영 변호사님께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도의 변화와 공익변호사가 실무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크게 공론화된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딥페이크 음란물이나, N번방 사태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처벌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법률이 능동적으로 변해가야 함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4. 마치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각각의 공익인권 분야에서 최전선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의 열성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학업에 쫓기던 첫 학기 동안 제가 왜 법조인의 길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변호사님들의 강연을 들으며, 사회 현실과 법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좁히는 법조인이 되어 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여러 종

류의 서면을 작성해보았던 것은 1학년인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려웠지만, 책으로만 공부하던 내용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포섭해보는 것은 정말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책 속의 지식 뿐만 아니라 리서치와 설득력 있는 글쓰기 능력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워가는 것, 얻어가는 것이 수없이 많았던 2주였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이였음에도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모두 세심하게 신경쓰고 배려해주신 주최 분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열성적인 강의와 꼼꼼한 피드백 해주셨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최창호

1. 서언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성 법조인들이 좁은 고시원 방에서 오랜 기간 두꺼운 법서와 씨름할 수 있었던 것도, 내년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강의실에서 현재의 힘든 과정을 버틸 수 있는 것도, 모두 꿈이 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같은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부대끼며 지냈던 여러분의 동기이자 선후배인 어떤 이는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법학을 사랑하고 변호사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저는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힘들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교수님 이하 졸업생과 재학생 여러분, 저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하 ‘영구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을 응시할 수 없는 ‘영구응시금지자’가 된 졸업생입니다.

지난 2020.9.24,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영구응시금지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세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문의 핵심인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내용은 2016년에 나왔던 첫 결정문의 내용을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복사 붙여넣기’하는 정도였고 그 내용도 현재의 판단인지 법무부의 주장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법무부가 주장하는 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모순투성이였습니다.

법에 문외한이더라도 수험생활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위 ‘영구응시금지조항’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조항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로스쿨 재학 시절 대부분의 동기들 또한 위 조항은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고, 현재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도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전원 내부와 주변에서는 ‘영구응시금지조항’에 대해 언급이 금기시되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험시절 저 역시 그랬듯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영구응시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합격하면 될 것이고, 합격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조항이 되었으니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합격한 채로 졸업한 때로부터 3년 11개월이 도과하는 순간 졸업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영구응시금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위 기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면, ‘영구응시금지조항’의 위헌성의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두지 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개할 글의 내용은, 『① ‘영구응시금지조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② 현재 결정이 잘못된 이유, ③ ‘영구응시금지조항’의 폐지 이후 법전원의 대책』이고, 지면의 한계상 이번 호에서는 위 ① 중 일부만을 싣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음에 나누어서 싣기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2. ‘영구응시금지조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먼저 위헌 소지가 매우 크고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위 조항이 어떻게 거침없이 입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응시금지조항’이 용이하게 입법화된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위 조항은 그 핵심역할이 ‘변호사 수 통제’로서 ‘법조인 축’(소속과 상관없이 변시법 입법 당시 사시 출신자 모두를 일컫는 말로서 법무부의 고위 공무원이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까지도 포함합니다)의 기득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 둘째, 그 입법과정에 참여한 자들 모두가 ‘법조인 축’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의 입안을 주도한 자들은 법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며 이들은 대부분 현직 검사입니다. 또한 위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한 자들도 국회 법사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 법사위 소속 의원 간에 이의제기나 수정안이 나와야 입법이 저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영구응시금지조항’은 법사위에서 애초에 쟁점이나 논의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 그리고 일본도 변시에 응시기회제한이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나라도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을 박탈한 나라는 없습니다. 변시응시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영구응시금지조항’의 표면적 입법목적은, “①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 인력낭비 방지, ② 합격률 저하 방지, ③ 교육효과소멸 방지”로 되어 있지만(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변시법’ 제정 이유), 보다 근원적 목

적은, ‘법조인 축’에 의한 ‘변호사 수 통제’ 그리고 이와 맞물려 있는 ‘법전원’에 의한 ‘법전원 제도의 유지’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사시 제도가 ‘수험’을 통한 ‘선발’ 제도였다면 법전원 및 변시 제도는 ‘교육’을 통한 ‘양성’ 제도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 제1조 내지 제3조). 즉 변시 제도는 의사국가고시 등과 같이 총 입학 정원의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순수한 자격시험제 도입이다.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여부는, 입학단계에서는 적성시험 등으로, 재학 중에는 유급 등으로, 석사학위취득 단계에서는 졸업시험(이하 ‘졸시’)으로, 그리고 최종 변호사자격취득 단계에서는 변시에서의 총점과 과락 등 현행 방법에 의해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설령 이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지 합격률이 높으면 자질부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법전원이나 변시가 문제 있는 제도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는 것이고 개선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격시험제도로의 운용이 법전원법과 변시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해야” 하고(법전원법 제7조 제1항 본문), “법무부장관은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변시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법전원은 통제된 정원에 따라 입학한 사람을 법조

인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변시 제도는 위 입학자들을 가능한 한 합격시키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일정 인원을 불합격시키겠다는 전제 하에 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또한, “총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다. 즉, 법조인의 배출규모를 제한하되 그 진입장벽을 변호사 시험 단계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단계에 설정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9. 2. 26. 2008헌마370). 즉, 현재는, “법전원과 변시 제도는, 변시의 합격률을 낮추는 ‘준칙주의’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과 의사국가시험 제도와 같이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면서 변시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총 정원주의’로 운용하는 것이 법전원 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변시 제도가 순수한 자격시험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위 동결정례).

법전원과 변시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순수한 자격시험제도로 운용이 되었다면 합격률도 높게 유지가 되었을 것이고¹⁾ 그렇게 된다면 ‘무제한 응시’나 ‘합격률 저하’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응시자 대비 합격률 95%인 의사국가고시 등 참고). ‘영구응시금지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자격시험제도에 맞게 합격자 수를 배출하더라도 졸업 전후로 진로를 변경한 자들과 유급·졸시·변시총점및과락 등으로 탈락한 자를 제외하면 합격자 수가 약 1,800명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제9회 변시합격자 수가 1,768명인 점을 보면 애초에 ‘영구응시금지조항’을 입법하지 않



았어도 변호사 수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영구응시금지조항’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도 없었을 것인데 하는 뼈아픈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와 같이 법전원법과 변시법의 규정과 현재의 결정에서도 순수한 자격시험제도를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법조인 측은 어떻게 ‘영구응시금지조항’의 입법을 시도할 수 있었는지와 왜 법전원마저 위 조항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변호사 수 통제’를 목적으로 한 ‘법조인 측’과 ‘법전원 제도 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전원’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했고, 위 두 목적의 적합한 수단이 ‘영구응시금지조항’으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변시법 제정 당시 합격자수 결정에 관하여는 법전원보다는 법조인 측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변시법’(이하 ‘제정 변시법’)에서도 지금과 같이 “시험의 합격은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했지만(제정 변시법 제10조 제1항),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무를 맡는 ‘변시 관리 위원회’(이하 ‘관리 위원회’)의 위원인 법조인 측과 법전원(법학교수)의 비율이 ‘8:5’인데다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명에 의하므로 합격자 수 결정에 관하여 법조인 측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제정 변시법 제14조 제3항).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변시법’에서 훨씬 심화되었습니다. 즉, 합격자 수 결정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변시법 제10조 제1항 본문), 기존의 관리위원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변협’ 등의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변시법 제10조 제1항 단서).

변시법은, 이미 법전원법이 제정된 후 총 입학정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합격자 결정에 관한 변시법도 당연히 이미 제정된 법전원법과 법전원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정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비롯하여 법사위와 그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변시법 논의 과정에서 법조인 측과 법전원은 법전원법과 법전원 제도의 근본 취지인 ‘인가주의, 총 정원주의, 순수 자격시험제도’를 가운데에 두고,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조인 측의 주장의 핵심은 항상 ‘변호사 수 통제’였고, 이에 법전원은 ‘인가주의, 총 정원주의’에 반하는 ‘입학정원 확대 및 준칙주의’까지 주장하며 맞서면서도 ‘일본 신사법시험의 30%대 합격률과 로스쿨제도 실패’라는 평가를 자주 언급하며 ‘영구응시금지조항’의 필연성을 간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합격자 1,000명을 바랐던 법조인 측으로서는 누적되는 불합격자 수로 인한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로스쿨 제도 실패를 거울삼은 법전원로서는 합격자 결정을 법조인 측이 주도하는 마당에 총 입학정원 중 상당수의 불합격 누적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전원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영구응시금지조항’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달랐음에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은 일치하게 되었고 두 힘의 불균형적 역학관계 속에 ‘영구응시금지조항’이 기형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청회부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영구응시금지조항’은 정작 국회 법사위에서는 쟁점도 논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형근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응시횟수보다 응시기간의 제한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침해가 큰데도 응시기간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당시 사법시험과의 병행 문제를 이유로 응시횟수에 관해서만 3번이나 5번이나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영구응시금지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는데 법사위에서 유일하게 비법조인인 박영선 의원과 법학교수이지만 법전원과 상관은 없는 국민대 교수였다는 점은 ‘영구응시금지조항’이 왜 존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조인 측의 ‘합격자 수 통제’는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제1회 변호사

1) “적어도 응시자의 80% 이상이 합격하는 자격시험제도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하에 채택되었고 2008년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논의하면서도 예상했던 것입니다(국회사무처, 제278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9호(2008.11.20.), 15~16면).

2) 류하경 변호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인가』에 관한 토론집 중 ‘오탈제의 문제점’, 61면.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이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정해졌던 것은 당시 합격자를 1,000명으로 통제하려는 변협 등 변호사 이익단체와 이에 맞섰던 법전원 제1기 재학생들의 대립의 산물이었습니다. 결국 두 집단 간 어정쩡한 타협 끝에 변호사 배출인원이 1,500명으로 고정되어 ‘정원제 선발시험’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 당시 합격자 결정 방식을 ‘입학정원 대비’가 아닌 ‘응시자 대비’로 정했다면 매년 불합격자가 누적될 일도 합격률이 급락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²⁾ 그 당연한 결과로 ‘영구응시금지조항’이 존재할 구실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제5회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국회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사시 합격자 200명, 변시 합격자 800명 배출’을 골자로 한 변시법 개정안을 논의함으로써 이미 사법시험 폐지를 입법화한 법률을 신뢰하고 법전원에 입학한 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3. 결어

이와 같이 ‘영구응시금지조항’이 입법화되고 유지된 목적은, ‘변호사 수 통제’와 이와 맞물린 ‘법전원 제도 유지’였습니다. ‘변호사 수 통제’는 법전원법과 변시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입니다. ‘법전원 제도 유지’는 제도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거꾸로 제도 유지를 위해 해마다 200 ~ 300명의 무고한 피해자인 ‘영구응시금지조항’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이 목적 또한 위헌적·위법적인 것인데다 ‘변호사 수 통제’라는 위법한 목적이 소멸되면 ‘법전원 제도 유지’는 ‘영구응시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구응시금지조항’은 어떤 조건도 전제하지 않고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ICT 분쟁 조정인은 누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분쟁 경연, 2020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지난 9월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 제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가 열렸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했을 만큼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중앙대학교 로스쿨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9월 11일(금) 2020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2개 팀(110명)이 참가신청을 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선심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지난 8월)되었으며,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9월 11일(금)에 진행된 본선 경연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카카오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었다.

■ 경연대회 프로세스



대회에 출전한 팀들은 4개의 분야(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주제로 분쟁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1차 예선(서면)과 2차 본선(현장경연)을 치렀다.

※ 참가자들은 선택한 1개 분야의 사례를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시연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분야의 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본선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조정의 진행 및 내용의 전달력, 시연의 참신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서 총 4개의 팀을 최종 선발하고 시상하였다.

김석환 KISA 원장은 9월 16일(수)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이번 대회가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ICT 분야 미래 인재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분쟁조정제도는 비대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ICT 관련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인 만큼 KISA는 앞으로 ICT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과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은 전남대학교 법전원 임병석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배운성 사무총장, 시립대 임정하 교수, 고려대 이대희 교수, 상명대 조영곤 교수, 고려대 이대희 교수, 상명대 조영곤 교수, 법무법인 린 정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이상호 변호사 등이 맡았다.



■ 시상 내역

시상 내역	시상 명의	수상팀	신청분야	상금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앙으로 조정(중앙대)	전자거래	5백만원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조정치(서울시립대·성균관대)	정보보호산업	3백만원
우수상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로벤저스(고려대·이화여대)	인터넷주소	2백만원
특별상	경연대회 심사위원장	화수분(단국대)	온라인광고	1백만원

■ 경연대회 다시보기

경연대회 본선 동영상은 우측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2020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대상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앙으로 조정'팀
권시은, 여인기, 김형섭,
진우정, 홍예린



대상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주세요.

역대 최다팀인 22팀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본선에 진출한 다른 팀들의 경연도 훌륭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선행학습에 대한 압박감이 없진 않았지만, 지난 7월 말부터 열심히 준비했었던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기에 매우 기쁩니다. 대회 준비기간 동안 도움 주신 선배님들과 함께 고생했던 동기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분쟁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때론 시민들에게 '법'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가고싶을 만큼 억울하지만 금전적·시간적·심적 비용이 부담이 되어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송까지 가지 않는 또는 가기를 원치 않는 유형의 분쟁의 경우 양당사자 모두에게 조정제도가 유익하고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저희 팀원 모두 교내에 있는 <조정학회>의 학회원들입니다. 다년간 여러 조정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경험이 있는 학회 지도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1학년 학회원 중 5명이 팀을 꾸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서는 조정제도와 관련된 <협상론>이나 <ADR>과 같은 과목이 매년 개설되며 교내 조정학회가 있어 이러한 조정제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대회 참여를 통해 조정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고픈 팀원들의 열정이 자연스럽게 대회 출전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조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팀명인가요?

양측으로 나뉜 당사자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정제도'의 의미를 살리는 팀명을 짓기 위해 고심하여 작명하였습니다. 일도양단의 all or nothing의 결과가 아닌 양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4개의 분야 중 전자문서·전자거래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해당 분야 안에서 '간편결제서비스(SP)를 활용한 통계판매증개에서의 분쟁'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팀은 통신판매증개업을 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내 결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경영자들의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싶었고, 이에 플랫폼경영자이자 결제서비스제공자인 사측과 이를 이용한 사용자측의 분쟁을 창작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통해 국내에서 활발하게 개발된 Payment Gate (PG)사의 Simple Payment (SP) 서비스는 많은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증진시켰지만,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보안이슈가



· 왼쪽부터 조정부장 홍예린, 조정위원 진우정, 신청인 여인기, 피신청인 김형섭, 서기 권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플랫폼들은 1차정보인 계정정보만 취득하면 2차정보인 결제정보(비밀번호, 생체인증)인 증 등의 절차 없이도 한번의 클릭만으로도 결제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결제절차에 대해 통일된 규제나 기준이 없다보니 현행대로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진다면 이와 관련된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번 소재를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전자거래가 급증하면서 직접 판매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판매를 중개한 업자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등은 전자상거래법개정을 통해 플랫폼경영자(통신판매증개업자)의 판매자의 정보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본인이 판매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 고지하면 통신판매증개업자가 면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결국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중국적으로 플랫폼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인지도, 신뢰도에 걸맞는 책임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서면으로 진행된 예선심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속 사실관계는 길보기에는 단순해보이나, 이를 법률적 의미로 해석하니 사안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법률적 사실관계를 쟁점별로 분석 및 정리하고, 양당사자측으로 팀원을 나눠 각 측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고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과 전자결제라는 분야에 대해 확립된 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 논문과 판례, 해외 입법례 등 참고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 조정의 법리와 논리를 전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실제상황처럼 보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실제 거래양태를 체험 및 분석하여 다수의 증거자료를 창작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본선 경연은 실제 조정 과정을 보는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고, 조정위원이 이를 잘 조정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시나리오를 구성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이었나요?

작성된 서면을 바탕으로 본선경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니 첫 대본 리딩시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되, 컴팩트하게 모든 쟁점이 녹아들어 있는 대본 작성을 위해 노력했



습니다. 발언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문 혹은 판례는 PPT로 보완하여 시간을 확보하되, 사안의 쟁점과 당사자들의 입장, 조정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였습니다. 이 경연은 소송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조정'은 말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발언하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자세를 담아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팀원들 모두 실제상황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나요?

사안의 내용을 집약하여 나타내기 위해 PPT수가 많았던 만큼, 전체적 흐름에 따라 시각자료를 담당할 사람 한명을 연기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누구도 연기에 자신있어 하지는 않았지만, 경연에서 연기가 선택적 요소가 아닌 필수적 요소였던 만큼 자신이 각자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여 연습했습

니다. 처음에는 모두 국어책 읽는 것 같이 어색했으나, 거듭된 연습으로 혼신(?)의 연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요?

관련법령과 자료를 습득하여 이를 사안에 정확히 적용하고 조정제도에 맞춰 이를 서면 및 경연으로 현출해내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준비 도중 코로나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팀원들과의 만남 및 만남의 장소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대회를 준비했는데, 실제 만나는 것보다 비교적 원활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팀원들간의 팀워크가 워낙 좋아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021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 출전할 로스쿨 학우들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때론 책보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로스쿨 재학 중 학업만으로도 시간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배울 수 없는 훌륭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등 재학 중 다양한 도전을 통해 값진 경험을 쌓아보기를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 접수기간 : 2020. 10. 5.(월), 09:00 ~ 10. 8.(목), 18:00

대학명	모집정원							지원현황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185	13	198	198				5.00	4.33	4.95	4.95
건국대	37	3	40				40	120	10	130				130	3.24	3.33	3.25				3.25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227	22	249	230	17	247	496	4.13	4.40	4.15	4.11	4.25	4.12	4.13
경희대	55	5	60				60	357	28	385				385	6.49	5.60	6.42				6.42
고려대				111	9	120	120				295	35	330	330				2.66	3.89	2.75	2.75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361	43	404	403	30	433	837	9.76	14.33	10.10	10.89	10.00	10.83	10.46
부산대	65	5	70	46	4	50	120	232	23	255	161	22	183	438	3.57	4.60	3.64	3.50	5.50	3.66	3.65
서강대	18	2	20	19	1	20	40	134	12	146	197	8	205	351	7.44	6.00	7.30	10.37	8.00	10.25	8.78
서울대	139	11	150				150	486	50	536				536	3.50	4.55	3.57				3.57
서울시립대	45	5	50				50	155	25	180				180	3.44	5.00	3.60				3.60
성균관대				111	9	120	120				309	21	330	330				2.78	2.33	2.75	2.75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32	11	143	147	13	160	303	5.74	5.50	5.72	6.39	6.50	6.40	6.06
연세대				111	9	120	120				329	39	368	368				2.96	4.33	3.07	3.07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262	34	296	285	18	303	599	8.19	11.33	8.46	8.64	9.00	8.66	8.56
원광대	30		30	25	5	30	60	422		422	343	61	404	826	14.07		14.07	13.72	12.20	13.47	13.77
이화여대				92	8	100	100				345	35	380	380				3.75	4.38	3.80	3.80
인하대	21	4	25	25		25	50	101	23	124	146		146	270	4.81	5.75	4.96	5.84		5.84	5.40
전남대	51	9	60	60		60	120	188	35	223	255		255	478	3.69	3.89	3.72	4.25		4.25	3.98
전북대	37		37	37	6	43	80	209		209	251	35	286	495	5.65		5.65	6.78	5.83	6.65	6.19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89	7	96	92	2	94	190	4.94	3.50	4.80	4.84	2.00	4.70	4.75
중앙대	46	4	50				50	437	24	461				461	9.50	6.00	9.22				9.22
충남대	50		50	43	7	50	100	167		167	141	27	168	335	3.34		3.34	3.28	3.86	3.36	3.35
충북대	40		40	25	5	30	70	207		207	118	15	133	340	5.18		5.18	4.72	3.00	4.43	4.86
한국외대	46	4	50				50	167	16	183				183	3.63	4.00	3.66				3.66
한양대				93	7	100	100				286	27	313	313				3.08	3.86	3.13	3.13
합계	845	67	912	1,003	85	1,088	2,000	4,453	363	4,816	4,518	418	4,936	9,752	5.27	5.42	5.28	4.50	4.92	4.54	4.88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스포츠인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모굴(Mogul) 스키는 울퉁불퉁한 눈두덕으로 만들어 놓은 경사진 슬로프에서 점프와 턴을 하면서 내려오는 스키 종목의 일종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의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서정화 선수는, 올해 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스키는 언제부터 탔나?

만 세 살 때부터 탔다. 부모님께서 스키를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키장을 오고 갔다. 모굴스키는 열 살 무렵에 시작했다.

2006년 국가대표팀에 선발됐지만 합류하지 못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국가대표팀 첫 소집일이 중간고사와 겹쳤다. 감독님께 훈련에 합류하는 일정을 하루 이틀 늦출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돌아온 건 ‘국가대표 포기각서’였다. 엘리트 체육이라면 운동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에는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포기각서를 보냈다. 이후 틈틈이 개인 훈련을 하면서 지냈고, 이듬해에 감독이 바뀌면서 다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겠다. 더군다나 수재들만 모이는 외고 아니었나(웃음).

최대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훈련했기 때문에 학교에는 내가 국가대표팀 선수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웃음). 물론 훈련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 수 있었다. 특히 엘리트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업 등 다른 생활들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진학해 동아시아학을 전공했다.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주로 체육 관련 전공을 택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한국 운동선수들이 체육과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는 이유는 체육특기자 전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미국은 체육특기자 제도가 없을뿐더러 운동선수 활동을 봉사나 과외 활동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체육 외에도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고등학생 때 일본 청소년 대표팀과 함께 일본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문화, 경제, 정치 등에 관심이 생긴 탓인지, 어렵지 않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다.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본격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단체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개인 훈련에 집중하고 필요할 때만 모이는 시스템이다. 또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학교 일정과 훈련이 겹쳤을 때에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도 올림픽 직전 주요 시즌에는 휴학을 했지만 학기 중에는 수업을 최대한 들으며 학업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감사하게도 대표팀에 있는 동안에는 감독님이 계속 미국분이어서 이해를 많이 해주셨고, 필요한 경우엔 교수님들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서
정
화

학
생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기도 하셨다(웃음).

12년간 운동선수로 활약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2018년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선수로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인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나갈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모굴스키는 비인기 종목인데다 국제대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려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많았고 그만큼 동기부여도 됐다.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이어서 그런지 국민들에게도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웃음).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동계올림픽 모굴 스키 종목에서 높은 성적으로 결선에 오른 건 처음이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다.

물론 금메달을 따면 더 좋았겠지만(웃음), 메달을 목에 거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목표가 있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공부와 운동은 절대 병행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바랐다. 어린 시절 국가대표 포기각서를 쓴 이후로 줄곧 운동선수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스스로 나아갈 분야를 개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팀 은퇴 후 로스쿨에 진학했다.

스포츠 심리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로스쿨이었다. 때마침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책을 읽은 것도 로스쿨 진학 결심에 한몫을 했다. 마사 누스바움 교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타인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셜 읽기’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결승에서 서정화가 슬로프를 내려오며 점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를 강조했다.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정의 실현이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수자를 대변해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다.

로스쿨에서 두 번째 학기가 끝나간다. 소감은?

‘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가져다주는 신선함과 충격으로 한 해를 보냈다(웃음).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학문이라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낯선 만큼 재미있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생활다운 학교 생활을 해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철저한 시간 관리 등 국가대표 선수를 하면서 몸에 밴 습관들이 법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법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완벽한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처음 접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일단 노력해보고,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운동도 자신만의 스킬이나 노하우를 찾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거쳐야 한다. 경험상 운동은 노력하는 만큼 돌아왔

는데, 법학 공부도 노력에 비례하기를 바란다(웃음).

특별히 재미있다고 느끼는 과목이 있나? 공부 방법도 함께 이야기 해 달라.

1학기 때에는 헌법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성적이 가장 낮게 나왔다. 재미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웃음). 요즘에는 민법에 많은 시간 투자하고 있다. 공부 방법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례집에 나오는 모범답안을 베껴 쓰고, 키워드를 잡아서 암기한다. 기본서만 보는 것보다 사례 문제를 같이 보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서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교육받을 권리는 인권이고 헌법적인 권리인데 스포츠인들은 이런 권리를 너무 당연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니, 어린 시절 내가 강요당했던 것처럼 여전히 선수들의 학습권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있어 안타까웠다. 폐쇄적인 스포츠계의 특성상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이때 선수들의 곁에 서서 작은 도움이 라도 되고 싶다. 나아가 스포츠인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Lawschool TIP

로스쿨 입학 전, 알아두면 좋을 꿀팁

법학 선행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부하고 입학하면 좋을 것 같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면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요한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진도가 안 나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면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고 시간 조절도 가능해진다.

book

2020년도 제2차(8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지난 8월에 시행된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을 담았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작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사례형에 한함
판매가격	2020년도 제2차 - 단행본(10,000원)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청방법	상시주문 1.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2.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번 책 『판결과 정의』에서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책에는 법관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던 저자의 오랜 고민과 ‘판결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이 오롯이 녹아 있다. ‘성희롱 교수의 해임 결정취소 소송’ ‘가습기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삼성엑스파일 사건’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저 자	김영란
출 판 사	미디어창비
판매가격	15,000원
판 매 처	전국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



인간 본성, 법의 받침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진화심리학

전중환 교수

나라를 다스리는 두 축은 포상과 처벌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나는 릴리퍼트 제국 외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 원칙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나 73개월 동안 국법을 충실히 지켰다는 증거만 대면(...) 일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상금도 받는다(...). 내가 우리나라의 법률은 상 없이 오로지 벌만으로 집행된다고 하자, 릴리퍼트 사람들은 우리의 법률에 엄청난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1726).

안 될 것도 없다. ‘독거노인을 보살핀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상금에 처한다.’, ‘10년간 죄를 범하지 않은 자에겐 국가 훈장을 수여 한다.’처럼 당근을 내미는 법들이 법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상상해 보자. 덕분에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로워지면, 법조인들도 일반인들도 모두 활짝 웃게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법전에는 분명히 세금 감면이나 성과급처럼 상을 내리는 법도 있다. 하지만 벌을 내리는 법이 훨씬 더 많다. 왜 그럴까? 포상보다 처벌이 모두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데 더 효과적인 수단임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잠깐, 법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알지? 처벌이 더 무섭다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까?

이 점을 주목하자. 법은 인간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 정의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다. 따라서 법은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인간이 어떠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려주는 이론을 반드시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은 사람들이 징역을 겁내 나머지 인신매매를 하지 않으리라는 암묵적인 가정을 깔고 있다.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정확하고 탄탄해야 법은 비로소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법은 인간 행동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다. 인간 행동을 설명하

는 이론은 이 지렛대를 떠받드는 받침점이다. 받침점이 무르고 약하면 지렛대를 아무리 눌러 대도 물체는 꿈쩍하지 않는다. 인간 행동의 이론이 낡고 틀리면 법체계를 아무리 다듬어도 인간 행동은 변화하지 않는다. 뇌과학, 인지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현대 과학은 인간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엄밀한 과학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놀랍게도, 많은 법조인이 법이야말로 마음의 최신 연구 성과에 바탕을 뒀야 함을 애써 외면하거나, 한물간 이론을 여전히 참이라 믿고 있다.¹⁾

이 글은 마음에 대한 과학 중에서도 진화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진화적 시각은 마음에 대한 여러 접근을 통합하는 중심축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진화적 이해가 어떻게 법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토대가 되는지 살펴보자.

마음은 먼 과거 조상의 번식을 높이기끔 만들어졌다

독자 여러분을 포함하여 오늘날 지구에 사는 78억 전 세계 인구는 큰 자랑거리가 있다.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세균, 원생동물 등 지금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자랑거리다. 우린 모두 이렇게 큰소리칠 수 있다. “수많은 내 직계 조상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번식에 성공했어! 어려서 죽거나, 장수했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조상은 전혀 없다고!”

진지하게, 이는 정말 위대한 업적이다. 6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과 현대인 사이에는 수십만 명의 직계 조상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그들과 동시대를 산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거나, 살해되거나, 절벽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자식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의 직계 조상들은 실패하

지 않았다. 이 말은 무조건 옳다. 즉, 78억 현대인은 지구상에 어쩌면 존재할 수도 있었던 광대한 인류 집단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수백만 년 전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 자손을 성공적으로 남기게끔 해준 유전자를 직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섹스를 즐기고, 아이를 사랑하고, 절벽을 두려워하고, 사기꾼에게 분노하는 이유다.²⁾

진화심리학은 마음의 복잡한 구조를 진화의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마음은 오래된 연장통이다. 즉, 인간의 마음은 먼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직면했던 적응적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빚어낸 심리적 연장들의 모음이다. 마음은 수십 명 정도의 작은 혈연 집단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삶을 연명했던 먼 과거에 맞추어져 있음을 주의하시라. 수십만 명의 익명의 대중 사이에서 자동차, TV, 인터넷, 고칼로리 가공식품, 야간 조명, 비디오 게임 등을 소비하는 현대의 산업 사회에서 석기 시대인의 마음은 종종 고장을 일으킨다.³⁾

인간 본성에 대한 진화적 접근은 법학에 큰 울림을 준다. 마음이 어떠한 목적을 잘 수행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되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자연 선택은 후대에 복제본을 더 많이 퍼뜨리는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 점차 흔해지는 기계적인 과정이다. 어떠한 목표도 의도도 없기에 작은 따옴표를 쳤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마음은 개인의 물질적 이득을 최대화하게끔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마음은 공동체의 이득을 증진하게끔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마음은 먼 과거의 소규모 사회에서 조상의 번식을 높이기끔 만들어졌다. 이러한 통찰이 어떻게 법학과 만나는지 사법적 정의를 예로 들어 보자.

소규모 사회에 맞춰 진화한 마음과 현대 국가의 사법적 정의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의 성 착취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보다는 가해자의 성장 배경과 개인사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논란이 일었다. <대학생 ‘갓갓’의 두 얼굴 ...내성적이고 평범한 건축학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전문대 다닐 때 평점 4.17 우등생> 등의 기사가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가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수천만 명이 사는 현대의 법치 국가에서 일반인들은 체포된 범죄자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길까?

1) Jones, O. D. (2015).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law. In D. M. Buss (Ed.), The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Volume 2: Integrations, 2nd ed. (pp. 1180-1203). New Jersey: John Wiley & Sons; Jones, O. D., & Goldsmith, T. H. (2005). Law and behavioral biology. Columbia Law Review, 105, 405-502.

2) 리처드 도킨스, 이용철 옮김, (1995/2005), 『에덴의 강』, 사이언스북스.

3) 전중환, (2019), 『진화한 마음』, 휴머니스트.

진화심리학자 미카엘 페테르센은 현대인이 사법적 정의를 판단할 때 석기 시대의 소규모 사회에서 조상들이 이기적인 위반자를 처벌 혹은 용서할 때 작동하던 심리가 그대로 쓰인다고 제안했다. 페테르센을 따르면, 누군가 규범을 어겼을 때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변수를 살핀다. 첫째, 위반 행위의 심각성이다. 타인에게 끼친 피해가 클수록 위반자를 더 가혹하게 징벌하여 향후 어떤 도발도 응징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심리가 진화하였다. 둘째, 위반자가 나중에 나의 좋은 사회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어떠한 복지제도도 생명보험도 없이 고작 수십 명이 살았던 집단에서, 만약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섣뚱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이웃은 미리 많이 들수록 유리했다. 위반자가 나와 이미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친구이거나, 나와 같은 집단에 속하거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거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염려가 없거나, 나에게 앞으로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면 잠재적인 파트너로서의 가치는 상승한다.⁴⁾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위반자의 잠재적인 파트너 가치, 이 두 변수는 범죄자를 대하는 마음에 각각 다르게 작용하리라 예측된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은 범죄자를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지, 즉 형의 경중을 정할 때 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에 위반자의 파트너 가치는 더 근본적인 충위, 즉 애초에 범죄자를 처벌할지 혹은 용서할지를 정할 때 작용할 것이다. 통념과 달리, 위반 행위의 심각성은 처벌 혹은 용서를 정할 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으리라고 예측되었다.

페테르센은 4,116명의 덴마크 학생들과 138명의 미국 대학생들에게 가상의 범법

사례를 읽고 위반자를 얼마나 용서할 의향이 있는지, 용서 대신 처벌한다면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고 싶은지 조사하였다. 위반 행위는 공공기물 훼손, 노상강도, 강간 등으로 심각성을 달리했다. 위반자의 파트너 가치도 위반자가 정말 뉘우치는지 여부, 이전에도 같은 잘못을 여러 번 했는지 여부, 내국인인지 여부 등으로 달리했다.

예측대로, 위반자가 장래에 좋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은 처벌보다 용서를 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무엇보다도, 위반 행위의 심각성도 처벌 혹은 용서 결정에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예측대로 위반자의 파트너 가치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오늘날 신문을 장식하는 범죄자가 형사 사법제도에 의해 처벌을 받건 용서를 받건 간에, 그 결정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 실제로 끼치는 효과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석기 시대의 소집단에서 위반자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정의를 판단한다.

요컨대, 인간 본성에 대한 진화적 설명은 법이라는 지렛대를 탄탄하게 지지하는 받침점이다. 왜 인간은 하필이면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법은 비로소 인간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면의 제약으로 사법적 정의만 예로 들었지만, 사유재산, 국제 관계, 환경 보전, 가족, 폭력, 사회계약, 노동, 남녀 관계 등 법의 모든 갈래는 진화라는 토대를 요구한다.⁵⁾

전중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화심리학)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동생태학 석사를 받았다. 텍사스대학교(오스틴) 심리학과에서 진화심리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국제캠퍼스) 교수다. 저서로 <진화한 마음>, <본성이 답이다>, <오래된 연장통>, 역서로 <적응과 자연선택>(조지 윌리엄스), <욕망의 진화>(데이비드 버스)가 있다.

4) Petersen, M. B., Sell, A., Tooby, J., & Cosmides, L. (2012). To punish or repair? Evolutionary psychology and lay intuitions about modern criminal justic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3(6), 682-695.

5) Cosmides, L., & Tooby, J. (2006). Evolutionary psychology, moral heuristics, and the law. In G. Gigerenzer & C. Engel (Eds.), *Dahlem workshop reports. Heuristics and the law* (p. 175-205). MIT Press; Dahlem University Press.; Robinson, P. H., Kurzban, R., & Jones, O. D. (2007). The origins of shared intuitions of justice. *Vanderbilt Law Review*, 60, 1633-1688.

로스쿨에서 나를 발견하기



상담교육연구소
도현

류진혜 소장

요즘 소위 좋은 대학을 다니는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고민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로스쿨 진학이라고 한다. 고시를 볼까 공기업을 갈까 로스쿨을 갈까 이런 선택지에서 로스쿨이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선택과정을 거쳐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재학생들은 어떤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직업이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이라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보는데 그중에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특히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상담에서 흔히 다루는 주제가 <이 직업이 나에게 정말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다. 안타깝게도 이 고민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주제인데 그 어려운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좋은 법률사무소에 입사까지 한 이 시점에서 막상 이러한 고민이 시작된다는 것이 참 안스럽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분들도 스스로 답을 좀 해보면 좋겠다. 나는 왜 로스쿨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을 한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적성, 성격, 흥미와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해를 조금 더 하게 될 것이다.

우선 '내가 로스쿨에 왜 왔지?'라는 물음에 답을 해보기 바란다. 답은 정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내가 변호사들을 상담할 때 이것을 물어보면 대부분 '마땅한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부모도 원하고 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

직업도 전문직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았다' 정도의 답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여기에서 '부모도 원하고'라는 대목은 진로상담의 측면에서 보면 'ought to self', 즉 되어야만 하는 자기, 부모가 바라는 자기를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는 양상을 말한다. 의외로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부모가 바라는 진로를 따라 자신의 미래를 후다닥 결정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만나보았다. 우리 인생에서 부모란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고, 부모의 원함은 어떤 상황에서선 자신의 원함을 짓누르고 이기는 속성이 강하기도 하다. 또한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로스쿨 진학으로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회복하려는 보상심리까지 작용하여 나와 이 진로가 정말 잘 맞을까에 대한 고민, 적성이나 흥미, 성격특성 등을 제대로 고민해보는 것보다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나 그러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으로 로스쿨 진학을 성급히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어찌 되었든 이때 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부모가 로스쿨을 원했다면 그럼 당신 스스로는 무엇을 원했는가?'

'자신이 명확하게 원한 것은 없었다'. 혹은 '뭘, 로스쿨에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부모의 의사에 동의했다', '뭘, 변호사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었다' 등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이 명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했거나,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없었지만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는 답을 들으면 이 분들이 현재 방향하거나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처럼 생각된다. 이 중요한 선택에서 부모와 환경적 조건 등은 선명하지만 정작 자신은 안개 속에서 아물아물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 말하자

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이해가 결핍된 상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확인하지 못한 자아정체감의 미확립 상태에서 진로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나 남이 우선 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내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막상 로스쿨에 들어와서 보면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들이 득실거린다. 이때부터 '학업적으로 명확히 더 우수하지 않으면 큰일이다'라는 신념에 스스로 갇히고 시달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학업에 매진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동기로 공부를 즐겁게 잘하기란 참 어려운 것이다.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히 어렵지 않겠는가?

또한 이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비교의식 혹은 타인의식일 것이다. 타인의 시선은 생각보다 참으로 힘이 센 부작용을 유발한다.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들은 거의 학업적으로 우수한 성공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고 학업을 잘해서 긍정적 강화도 많이 받아 본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긍정적 인 모습으로 자신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무엇을 못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는가? 보통 이러한 경우 공부에 몰입도 잘 안 되고 스스로 불안과 긴장감에 시달려서, 투여한 공부 시간에 비해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자신의 공부습관, 방법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학습 동기가 잘 안 생기는지 걱정을 해보지만, 그 부적응의 해답은 본인의 마음 속의 불안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끔찍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에 더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보지만 공부는 공부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더 부정적으로 기우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공부만 쳐다보았지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악순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와서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는 아 이러한 변화를 종종 목격해왔다. 이들은 아주 많은 성공 경험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원하는 좋은 대학과 학과에 진학했는데 왜 기능이 더 좋아져야지 떨어진단 말인가? 이러한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좋은 성적으로 과업에 대한 강화와 칭찬은 많이 받아보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러한 과업을 해낸 자신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아 본 경험이 적었던 사람이 정말 많았다. 노력해 온 자신을 대견해하고 알아주는 부모나 선생님, 친구 그리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자신이 존재했어야 하는데 이런 존재가 없었던 것

이다. 그래서 과업이 조금이라도 빠끗하면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 애쓰고 노력해 온 자신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도 자신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혹 잘못된 부분, 실패라도 수용해 줄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가혹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자아가 버티고 서있는 경우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업만 돌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돌보는 자질이야말로 행복의 열쇠가 아닐까 싶다.

진로상담을 하다 보면 진로를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가치관인 것 같다. '왜 이 직업을 선택하려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길 바란다. '로스쿨에 왜 왔는가?', '변호사는 왜 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 가지일 것이다. 법학 공부가 재미있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잘 벌어서, 사회적 권위와 명성을 얻고 싶어서, 전문직을 얻고 싶어서... 등등. 여기에 대한 답은 정말로 다양한 개인적인 가치관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 되었든 자신의 직업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직업 가치를 알고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내 직업에서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도 잘할 수 있고 스스로의 직업적 수행도 좋을 수 있다. 명료한 상황은 항상 심리적으로 사람을 안정시킨다. 돈을 잘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로스쿨에 와서 변호사가 된 사람은 돈을 잘 벌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얼마나 벌고 싶은지 생각도 해야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한다.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데 이 직업이 함께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방향하게 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불만족한 부분을 찾아내며 고통스러워한다.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요. 새벽까지 일하며 내가 왜 이려고 사나 싶어요. 정말 우울해요" 변호사가 적성에 잘 안 맞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내담자가 한 말이다. 이 사람의 직업 가치관이 명확했다면 아마도 심리적 갈등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자신을 안정화시키는 정말로 중요한 기제는 자기 마음 속의 지향을 알고 그것에 응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생각과 욕구, 바람과 가치관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로스쿨의 시간을 나누어 쓴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파고 취직을 하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에 답을 하는 것은 바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진전이자 직업에 잘 적응하는 비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내가 만나본 많은 법조인들 중에는 가장 딱한 사람들이 놀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일은 어떻게나 열심히 하는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스스로 즐겁게 휴식하고 노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365일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다. 노는 것도 능력이고 노는 것도 학습해야 하고 일종의 습관이라 평생의 시간을 좌우한다. 프로이드는 정상적인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잘 놀고- 이 세 가지가 정상적인 삶의 메뉴판인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되 놀기도 하고, 대인관계도 틈틈이 하는, 지혜롭고 균형잡힌 삶을 만들어 가시길 부탁한다. 나에게 오는 많은 내담자들 중 법조인분들에게 놀 계획을 세워오라고 하면 당황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제 겨우 변호사 1년차인데 어떻게 놀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평생 못 놀 이유를 만들어 괴롭게 일만 하며 늙어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여러분의 로스쿨 과정이 일의 전문성을 높이고, 친구와 선후배를 만드는 좋은 관계의 장이 되어주고, 즐거운 놀이를 보태는 놀이터로도 깜짝 변신하는 체험의 장이 되기를 응원한다.

류진혜 소장

現 상담교육연구소 도현 소장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상담심리전공)
심리상담전문가/ 기업리더십 코칭 전문가

마스크를 착용으로 인한 피부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갖은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손세정제 등으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긴다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착용하다보니 입과 턱 주변 또는 코 주변에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입이나 턱 주변에 여드름, 뾰루지 등 호소하거나 안면홍조, 모낭염, 각질 등 일반 피부 질환 환자도 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아닌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 용품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봤다.

마스크로 인한 피부 트러블

장시간 마스크를 쓰면 호흡 때문에 마스크 내부의 습기와 온도가 올라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피지 분비도 늘었는데 적절히 배출되지 않다 보니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마스크가 닿는 코, 입, 턱 부분에 뾰루지가 늘어난다. 또 코 지지대에 들어가는 철, 부직포, 고무줄 등 마스크 소재에 과민 반응 하는 사람은 접촉 부위가 빨갱게 올라오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육안으로는 여드름과 비슷하지만 별도의 치료법이 필요하다. 평소 세안을 대충 하거나 피부 보습 관리에 소홀한 사람이라면 피부 트러블은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코 주위 염증이 생긴 경우 우선 청결하게 피부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하루 2번 세안제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볼 수 있다.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피부과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처가 난 곳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스크가 닿는 자리에 생겼다면 접촉 부위에 자극이 적은 다른 종류의 마스크로 바꾸어 볼 수 있다.

마스크가 닿지 않는 이마 등에도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마스크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 마스크 표면에는 온갖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묻어 있고,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자주 만지고 또 얼굴도 자주 만지게 되면 손으로 오염물질이나 세균을 다른 피부에 옮길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음식을 먹는 경우 마스크가 더 오염되기 쉽고, 마스크 표면이 얼굴에 닿을 수 있는데 이런 습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피부에 문제가 있다면 이왕이면 마스크를 매일 새것으로

갈아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 마스크를 목에 걸 수 있는 '마스크 스트랩'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스크를 목에 걸면, 마스크를 바다, 책상에 두지 않을 수 있고 틈틈이 마스크를 벗어 피부를 신선한 공기에 노출할 수 있다. 만약 마스크를 재활용 한다면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놓아 말린다.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자주 보습하는 것이 좋다. 깨끗이 씻고, 보습을 해주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악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틈틈이 마스크를 벗고 10분 이상 피부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다. 특히 입, 턱 등에 뾰루지나 가려움을 느끼더라도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 자외선이 차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마스크는 충분한 자외선 차단이 안 되고 특히 흰색 마스크는 자외선 반사가 심한 만큼 눈이나 콧등에 기미, 주근깨, 검버섯을 만들 수도 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꼭 컬러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손세정제가 눈에 들어간 경우 대처법

손소독제는 알코올 농도가 높아 눈에 들어가면 각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눈에 튄 손소독제의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자극으로 인해 눈물이 생성돼 자연스럽게 희석된다.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 각막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때 눈을 절대로 비비지 말아야 한다. 세척 시엔 이물질이 들어간 눈을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해서 흐르도록 씻어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손소독제 외에 본드와 같은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화학물질은 본드뿐 아니라 매일 쓰는 화장품이나 락스, 세제에도 포함돼 있다. 응급조치는 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와 같다. 세척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양으로는 5L, 시간으로는 15~20분이 권장된다.

눈에 무언가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찢릴 때도 종종 있



다. 특히 최근 캠핑을 많이 가는데 이때 돌이나 밤, 가시 등이 튀어 눈을 찌를 수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눈 안쪽에 박히거나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물질을 억지로 빼내려고 눈을 만지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눈에 손을 대지 말고 깨끗한 천 등을 사용해 상처 부위를 감싸 보호한 상태로 곧장 병원을 찾아야 한다.

중중 지혈을 위해 눈을 누르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은 워낙 작은 기관인 데다 안쪽에 있는 망막, 수정체, 신경 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누르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다래끼와 같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래끼는 눈 안쪽의 피지샘이 나오는 구멍이 막히며 염증을 유발해 생기는 질환이다. 피지샘(지방)이 빠져나오려면 막힌 곳이 뚫려야 원활히 배출되므로 온찜질을 통해 막힌 곳을 풀어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부은 경우에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을 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시중에 다양한 찜질팩이 나와 있어 이를 사용해도 되지만, 집에 찜질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사용해 찜질해도 된다. 찜질 시에는 눈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좋다. 만약 찜질팩이 너무 뜨겁다면 깨끗한 수건으로 덧대어도 된다.



이진한 기자

소속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학력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통합의학과 박사
수상 2016년 제9회 건강의학기자상
2015년 제1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상
경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남기엽 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미술이 좋아 어려서부터 루브르, 프라도, MOMA 등을 누볐다. 설계된 사건 중 길을 찾아야 하는 송무와 달리 그림은 감상자가 온전하게 세계를 구성하여 길을 만드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현재 남변의 미술노트, 남변의 음악노트 등을 연재 중이다. 최근 대한민국공클에서 일반부 피아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변의 미술노트3] 히에로니무스 보슈 〈쾌락의 정원〉

사람들은 천당에 가고 싶어하면서도
지옥에 관심이 많다

- 나르테스크 카이아는 -

카이아는 지적하듯 모두가 천당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지옥에 관심이 많다. 까닭은 불행한 이들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위안이 꽤 쓸쓸한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지옥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부터 북유럽의 니블헤임, 앙리 바르뷔스의 인간 실존을 탐구한 소설 〈지옥〉까지. 그중 유명한 것은 1321년 단테가 쓴 〈신곡〉이다. 〈신곡〉은 배신자 부르투스, 유다가 루시퍼에 의해 참살당하는 장면을 묘사하며 지옥을 그렸다. 200년 뒤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슈(네덜란드)는 천국과 현실, 지옥을 연작으로 그렸다.

(#1) '천국'은 평화롭고, 아담과 이브로 추정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혹자들은 모두가 자연스레 할 일을 하며 평온하게 조화를 이루는, 신이 내려준 진정한 낙원이라 평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질감이 든다. 우선 탑이 있는 공간 안의 부엉이는 만물을 감시하고 고양이과의 동물은 쥐를 사냥한다. 새들 역시 사냥에 여념이 없고 동물들 사이 흐르는 굶주림은 나무늘보마저 땅 위를 기게 한다.

보슈는 상징을 즐겨 썼고 각 동물들로 필경 무언가를 의도했을 것이다. 그러한 알레고리즘은 어느 학자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상상과는 달리 '천국'에도 함정이 있음을 보슈는 웅변한다. 우측 하단의 검은 눈에 목이 빠진 핀치류, 그리고 그곳에서 발버둥 치는 설치류에 눈길 가는 이유다.

(#2) 난잡한 '현실'은 '천국'보다 우선 생기는 넘쳐 보인다. 상술하고 싶지 않지만 각 상징은 주로 남녀의 성적인 신체부위로 묘사되어 있다. 각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는 보이는 바와 같고 그 안엔 흑인들 몇과 물고기(타락한 인간)가 등장한다. 특징적인 것은 각 사람들의 표정이다.

여기에 미소, 환희, 어둠, 호기심, 대화, 갈구 등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데 인간의 욕망사가 잘 드러나 있다. 선악과와 체리는 인간의 허영심과 호기심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도 올빼미(이성)를 끝까지 붙드는 인간까지 표현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여과 없이 그려냈다(자세히 뜯어보면 어디 일본 성인물이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오브제도 많다).



〈쾌락의 정원(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히에로니무스 보슈
이 그림은 매우 큰데 쓰임새가 제단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1 〈쾌락의 정원〉 중 천국, 히에로니무스 보슈



#2 〈쾌락의 정원〉 중 현실, 히에로니무스 보슈



#3 <쾌락의 정원 중 지옥>



#3-1 <쾌락의 정원 중 지옥>



#3-2 <쾌락의 정원 중 지옥>



#3-3 <쾌락의 정원 중 지옥>

(#3) 위의 그림은 누가 봐도 '지옥'이다. 앞서 카이아르는 누구나 천당에 가고 싶어 하나 다들 지옥에 관심이 많음을 지적했다. 실제 <쾌락의 정원>이 전시된 프라도 미술관에는 사람들이 다들 지옥 앞으로만 몰려 사진을 찍는 탓에 그림 감상조차 쉽지 않다.

(#3-1) '지옥'을 그리며 작가는 본인 얼굴부터 그려 넣는다(중앙의 얼굴). 평소 지옥에 갈 것을 예언했다는 그는 지옥에서 신의 귀를 잘랐다. 성령은 교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한계시록 3:1-22)"고 가르친다. 귀가 없으니 들을 수 없었고 지옥에 떨어진 이 지점이 스스로 귀를 자르며 절망했던 고희와 묘하게 겹친다.

(#3-2) 신이 정해진 운명을 거슬러 우연에 재물을 맡긴 손은 칼에 꽂혀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 탐욕스러운 토끼는 사람의 시야를 거꾸로 보게 하고 카드를 즐기던 이들은 죄다 칼에 찢리거나 찢리기 직전이다. 우연에 운명을 거는 이들이 맞게 될 필연을 보슈는 16세기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3-3) 이 그림 역시 원색적이다. 전국 이름난 교회, 사찰 어디에서도 대학입시 기도를 하지 않는 곳은 없다. 종교적 구원을 세속적 욕망과 결합시킨 비즈니스를 예언하듯 성직자로 치장한 돼지가 인간에게 키스하려 한다. 그러한 동물적 욕망은 되레 흥기가 되어 다시 인간을 향한다. 좌측 상단

인간을 뒤흔치는 동물은 단테의 신곡을 떠올리게 한다. (보슈는 단테의 신곡을 읽었을 것이다)

이 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단테, <신곡 中>

(#3-4) 우측 그림은 가장 충격적이다. 음악은 언어가 없는 예술로, 모든 온기를 풍성하게 녹인다. 단테의 신곡 中 지옥은 희망이 없는 암울한 루시퍼의 세계로 묘사되지만 이를 프란츠 리스트는 피아노 위의 아름다운 소품(Après une lecture du Dante: Fantasia quasi Sonata)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이 그림에선 음악의 원천인 악기가 처형의 도구가 된다. 하프줄에 찢리면서, 만돌린에 묶여 처형당한다. 박자를 세는 메트로놈 안에 들어가 인간은 자신의 몸을 도구로 곧 다가올 절명의 박자를 기다린다. 인간의 둔부에 그려진 악보는 음악마저 단죄의 대상이며, 이러한 음악들 역시 결국 뱀(성적 타락)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난 진짜 내가 좋아서 피아노를 치는 것인데.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504년이다. 조선에선 당시 연산군이 폐비 윤씨를 복위시키고 김피필, 이극균을 처형했으며 이미 사망했던 한명회, 정여창을 부관참시했던 때이다. 임격정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 이 때 현대의 인간 서사를 재현해낸 듯한 이 작품은 당연히 많은 예술가들에게 참고가 되었다. 마이클 잭슨, 딥퍼플 등은 대놓고 표지에 쓰기도 했고.

한 시대의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 해석 영역에 포섭되고, 그 안에서 많은 평론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펼치며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든다. 그렇게 합의된 카테고리는 보통 '그럴 듯'하여 일반 대중에게까지 복속되지만 이 그림 만큼은 합의가 쉽게 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본다기보다 '읽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듯 싶다.



#3-4 <쾌락의 정원 중 지옥>

욕망과 이성의 대립을 지적한 철학·문학자들은 많았지만 보슈는 전적으로 '성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그림에 담았다. 이걸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SNS를 하는 그 수많은 유명인들도 적나라한 성적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쉽게 미움을 산다. 하물며 왕정 플랑드르를 살았던 작가에게는 여성들이 차도르를 벗는 만큼이나 꽤 큰 리스크가 있던 작업이었다.

이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성적 욕망을 전면내 내세워 인간 중심으로 끌어낸 것은 프로이트의 등장 이후다. 지금 보기에 너무 적나라하여 '혐오' 느낌이 드는 이 그림을 통해 욕망과 감성을 거세한 이성 중심 사회를 질타했던 것이 보슈의 메시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어느 쪽일까.

동물들만 잔뜩 있고 사람이라고는 무슨 하자가 있을지 모를 이성 1명 있는 천국? 욕망에 갇혀 아예 욕망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오히려 현실 또는 지옥이 더 살기 편할 수 있다.

천당을 꿈꾸면서도, 결국 지옥 앞에 몰려들어 사진을 찍는 저들같이.



양리마티스 탄생 150주년 기념 특별전 >>>>
JAZZ and Theater

2020년 양리 마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며, 국내 최초로 마티스 단독전이 개최된다. 양리 마티스(1869-1954)는 강렬한 색채의 '야수파'를 대표하는 화가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손꼽힌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마티스의 후기 '컷아웃(Cut-Out)', 일명 '종이 오리기' 기법으로 제작된 대표작 <재즈> 시리즈, 드로잉, 석판화와 함께 발레 공연을 위해 디자인한 무대의상, 로사리오 성당 건축 등 다채로운 원작 12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재즈>는 강렬한 색상과 타히티, 모로코 등을 여행하며 받은 영감을 자연의 무늬로 패턴화한 마티스 예술의 순수함과 정열을 보여 준다.

- 🕒 전시기간 2020.10.31. ~ 2021.03.03
- 📍 전시장소 마이아트뮤지엄
- 🎫 티켓가격 15,000원
- 🌐 홈페이지 <http://www.myartmuseum.kr/>

배윤환 개인전 >>>>
Lobster Quadrille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페인터로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배윤환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회화를 전공한 배윤환의 페인팅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 우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며, 실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 속 이미지를 자신의 이야기와 결합하거나 대립시켜가며 풀어나간다. 이번 전시는 작가 특유의 경쾌한 필치로 그라피티 형식의 평면 회화 기법을 탐구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회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 전시기간 2020.10.15. ~ 2020.11.28.
- 📍 전시장소 챕터투 아트(Chapter II Yard)
- 🎫 티켓가격 무료
- 🌐 홈페이지 <http://chapterii.org/>



목직한 울림 <<<<
연극 더 드레서(THE DRESSER)

연극 <더 드레서>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피아니스트>의 각본으로 유명한 작가, 로널드 하우드(1934-2020)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로널드 하우드가 드레서였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극본으로, 공연을 앞두고 벌어지는 노(老)배우와 드레서의 이야기를 현실적이고도 흥미롭게 그려냄으로써 주목받았다. 1983년 영화로도 제작되어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했고, BBC TV 영화로도 다시 제작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노배우 역에는 송승환, 드레서 역에는 안재욱, 오만석이 더블 캐스팅되어 연기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 🕒 공연기간 2020.11.18 ~ 2021.01.03
- 📍 공연장소 정동극장
- 🎫 티켓가격 70,000원
- 🌐 홈페이지 <https://www.jeongdong.or.kr/>

세계를 감동시킨 불후의 명작 >>>>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1965년 뉴욕에서 초연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브로드웨이 무대 역사상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손꼽힌다. 국내에서는 2005년 <돈키호테>라는 타이틀로 초연되었으며, 올해 한국 초연 15주년을 맞이하였다. 소설 '돈키호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신성 모독죄로 감옥에 끌려온 세르반테스가 죄수들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을 좇는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세르반테스이자 돈키호테 역에는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는 류정한, 조승우, 홍광호가 캐스팅되었다.



- 🕒 공연기간 2020.12.18 ~ 2021.03.01
- 📍 공연장소 샤롯데씨어터
- 🎫 티켓가격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 🌐 홈페이지 www.odmusical.com



김남국 국회의원과과의 간담회 개최

지난 9월 9일(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법전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순석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의 필요성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전문법률과목 시험의 개선사항, 법전원 실무역량 강화 연구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現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지난 2012년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전임 원장단 간담회 개최

지난 9월 9일(수)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신입 원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신입 원장으로 부임한 교수 4인(건국대학교 최윤철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이상경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정현미 원장, 인하대학교 이경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법전원협의회 주요 사업계획과 법전원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뒤이어 9월 14일(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원장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임기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원장들에게 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하는 자리로, 건국대학교 이승호 전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김대환 전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오종근 전 원장이 참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55차 총회 개최

지난 9월 25일(금)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55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법전원협의회 신입 임원 선임, 2020학년도 1학기 법전원 성적평가 이행현황 보고 및 2학기 법전원 성적평가 방안, 법전원 결원충원을 위한 법전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대한변협 특별평가위원회의 법전원 순위평가 발표에 대한 내용 등이 주요 심의·의결사항으로 논의되었다.

2021년도 제1,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원장단 회의 개최

지난 11월 6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원장단 회의'가 개최되었다. 법전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법무부 출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법전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매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세 차례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 6월과 8월에 진행되는 제1차와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의 기본방향, 영역 간사 및 전체 출제진 구성을 위해 진행되었다. 김순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 총괄위원장을, 성균관대 김일환 원장(공법), 이화여대 오종근 교수(민사법), 한양대 김재봉 원장(형사법), 충북대 이동원 원장(선택과목)이 영역별 위원장을 맡았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가채점회의 개최

지난 10월 21일(수)부터 26일(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가채점회의가 진행되었다. 가채점회의에 참석한 채점위원들은 15~20매 수준의 답안지를 가채점한 후, 채점위원 간 비교 및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가채점회의는 그룹 간 평균점수 편차 발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도부터 기본 과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Law Quiz



Q1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경찰관장장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된다.
-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려면, 방법이 폐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천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 ③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촬영 등의 행위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론형성 및 민주적 토론절차에 영향을 주고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
- 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Q2 甲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크게 설탕이라고 표기된 용기 안의 설탕을 청산가리로 오인하여 살해의 고의로 乙에게 먹였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위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甲의 행위는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② 행위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甲의 행위는 위험성이 부정되어 불능범에 해당한다.
- ③ 만약 설탕이 들어 있던 용기에 청산가리라는 표시가 부착

- 되어 있었다면, 위 ①의 관점에 의하면 불능범이, ②의 관점에 의하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④ 범죄의사가 확실하게 표현된 경우에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위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⑤ 만약 甲이 설탕임을 알았지만 설탕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고 乙에게 먹였다면, 위 ①과 ②의 어느 관점에 의하더라도 불능범에 해당한다.

Q3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丙의 구상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자신의 변제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ㄴ. 丙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에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은 포함되지만,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ㄷ. 丙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후구상권이 발생하면 사전구상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허락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출처: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0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논문 주제 : 통일법제 및 남북교류협력법제 관련 자유 주제

〈예시〉

-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남북한 법률통합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과제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 접수 기간 : 2020.12.1.(화) ~ 12.20.(일)

• 수상 발표 : 2020.12.28.(월)

• 시상 및 특전 :

- 최우수상(1편), 상장 및 200만 원 상당의 부상
- 우수상(2편), 각 상장 및 100만 원 상당의 부상

• 제출 방법 : "tongillaw@naver.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230)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 응모 자격 :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 응모 가능)

• 공모 내용 : 아래 영역에서 선정된 주제와 관련해 은폐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피해자의 구제 또는 제도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헌법소송,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또는 국제적 권리구제절차의 제안서

• 제안 방법 :

- 재단법인 진실의 힘 홈페이지(www.truthfoundation.or.kr)에 게시한 〈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자기소개서, 공익소송 제안서,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truth@truthfoundation.or.kr로 이메일 송부

• 접수 기간 : 2020.12.30.(수) 18:00

• 수상 발표 : 2021.1.25.(월)

• 시상 및 특전 :

- 우수 제안자에게 연구활동비(1등 200만원(3명), 2등 150만원(5명 이내)) 지원
- 선정된 제안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활동가의 지도를 받아 제안서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문의처 : 02-741-6260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